

메리놀병원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1 메리놀병원 후관 7층
 병원대표전화 051)465-8801



사람의 향기가 나는 메리놀병원은 1950년 4월 15일에 메리놀수녀회가 메리놀의원을 개원하고, 위트컴 장군의 도움으로 현 위치에 메리놀병원이 되어 운영된 지가 벌써 73년째가 되었습니다. 메리놀병원은 지난 73년간 부산의 현대사와 함께 발전했고, 부산의 의료 발전에는 ‘메리놀병원’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 결과 메리놀병원은 부산시민에게 친근한 거점 병원으로 도약하였으며, 부산에 없어서는 안 될 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메리놀병원의 호스피스는 1983년 15명의 병동 수간호사들의 첫 호스피스 모임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인간 존중, 생명 사랑을 통한 복음적 사랑의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리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산재형 호스피스에서 입원형(병동형) 호스피스로 거듭나며 2017년 2월 보건복지부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고, 말기 암의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와 가족들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으로 돌봄으로써,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삶의 한 과정으로 조화시키고 수용하여 평온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은 사별자들이 이별을 잘 준비하고 세상을 떠난 이의 아름다운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밝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모든 직원은 병동 안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함께 느끼는 영적인 나눔터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1. 기관 연혁

1983년	부산시 최초 호스피스 활동
1986년	호스피스 봉사자회 발족
1992년	원목실 호스피스 전담 수녀님(간호사) 부임
	제1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시작(117명), 사별가족 모임(6가족)
1994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사례발표회
1997년	호스피스 운영위원회 발족
1998년	중환자실 내 호스피스 병실 운영
2000년	부산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현장실습 위탁, 호스피스 간호사 보수교육
2003년	부산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과정 실습 협약
2006년	MBC 사회봉사 대상 우수상 - 호스피스 단체
2015년	부산시 서구보건소 연계 “호스피스 완화 돌봄 사업” 실시
2016년	“부산시 호스피스 완화케어센터” 협력병원 지정
	산재형 호스피스→병동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개소 (7월 4일)
2017년	보건복지부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2월 27일)
2023년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 14병상 운영 중



2. 인력 및 시설현황

인력	
의사	2
간호사	10
사회복지사	1
성직자	1
자원봉사자	11

시설		
입원실	1인실	2
	2인실	3
	3인실	2
임종실		1
가족실, 기도실, 프로그램실, 처치실, 간호사실, 상담실, 목욕실, 실내 정원, 물품 보관실, 사무실, 화장실, 오염물 처리실 등		

3. 서비스 현황

1) 돌봄 프로그램

입원을 환영하고 병동의 적응을 돕기 위한 입원 환영 세트 제공을 시작으로, 생일, 축일, 기념일 등의 이벤트, 명절과 부활 및 성탄을 축하하는 행사, 영적 돌봄을 위한 세례식 및 병사성사, 환자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마음을 나누는 가족 밥상 등으로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영적 돌봄을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빈소를 방문하여 고인과 마지막 작별 인사로 돌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 요법 프로그램

환자와 가족에게 정서적 안정과 삶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미술, 아로마, 리본공예 등의 요법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 밖에도 목욕 봉사, 이발 봉사, 주 1회 병동미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사별가족 프로그램

사별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상실의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는 시간을 거쳐 사별가족이 일상생활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안부 전화와 편지 보내기, 사별가족모임(4회/년) 및 추모미사(1회/년)로 사별가족 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홍보 활동

원내 직원 및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5월에는 통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통증 캠페인', 10월에는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호스피스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연 2회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신입회원 명단

일반회원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도현미, 오인숙, 한옥희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하여희, 정영미
- 원주교구 보건사목 : Fr. 한장우
- 익산성모병원 : 김영순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강갑순, 김영희, 박명희, 박은희, 배정숙, 서광숙, 송임옥, 이종숙, 정연환, 최진영, 박효경
- 동백 성루카병원 : 최경희
- 성기롤로병원: 김윤슬
- 성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 최영희